

KTF-한글
03-11-11

<2004년 총선과 여성>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던가. 여성정치 참여의 호기가 될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현재 불법대선자금문제로 세상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2004년 총선에서 국민의 환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치판도가 그려질 것이다.

총리의 탈로만의 개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위기국면에서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물론 지금까지 정치개혁의 주체인 정치권이 자기 뼈를 깎지못해 개혁의 걸림돌로 자리매김되었던 정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의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 나라의 여성의 의회 참여율을 평가해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한척도' 순위에서 조사대상 70개국 중에서 6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는 오랫동안 정치분야에서의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쳐 오던 터라 금번 총선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구체화해서 실효성을 확보해내겠다는 다짐이 대단하다.

최근 사회의 주목을 끌기에 족한 여성계의 총선대비 활동으로는 여성단체들이 연합해서 발족한 <총선여성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관련제도개혁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개선운동 그리고 개인여성선거자들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17대 국회에 100인 여성국회의원 보내기 운동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비례직 50%와 선출직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과 돈이 적게드는 정치를 위한 지구당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 그리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면 돈이 없어도 입후보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나 여성이나 정치신인들이 정계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거구제도 등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액의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와 교도소의 담장위를 걷는 정치적 경제인을 양산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그대로 둔 채 참신한 여성들과 신인들의 정계진출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과제가 총선여성연대의 역할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과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후보명단을 작성하고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하고 공천을 촉구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정당들의 여성인재 부족이라는 핑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계진출의 의사가 있는 여성들과 후보자들을 지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다. 이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여성참여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잘못된 정치병폐가 만연되어 있는 현상에서 고질적인 부패정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여성정치인의 대거참여로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원칙에 집착하며 각종 연고와 이권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소수의 참여는 현장에서 퇴출되거나 함몰되기 쉬우므로 필히 집단으로 참여해야 효과적이다.

관행적인 이권다툼의 정치, 대권을 향한 정쟁으로 일관되고 있는 정치풍토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정치,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정치문화로 여성들이 앞장서서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의 여성정치 참여의 의미는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정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절반의 몫을 다하여 여성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며 같은 소외계층들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일부의 강자들만의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현재 16명 밖에 안되는 여성 의원을 어떻게 6배나 되는 100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100명이란 의석의 30%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번 국회에서 여성할당제와 선거공영제가 통과되어 실현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부패정치를 척결하겠다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았던 변수의 연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기대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안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하는 일과 아직까지도 개인여성이 정치입문을 혼자 결단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여성계는 공동노력으로 해결해내야 한다.

어떤 여성정치인이 내년 총선을 앞둔 요즈음의 정계의 기류를 두고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하늘이 내린 기회를 실질적으로 성취해내는 데에는 이미 활동을 개시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에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힘을 보태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기가 서로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서는 하늘이 내린 축복도 비껴나가게 된다. 이제 6개월을 앞두고 있는 2004총선에서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정치참여 30%를 달성해내는 일을 꿈꾸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화된다고 하지 않는가.